

조용한 소음 (SILENT NOISE)	
참여 작가	멜로디박, 이수진
전시 기간	2024 년 10 월 24 일 - 11 월 30 일 (오프닝 리셉션 : 10 월 24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FIM

전시 내용

한남동 유엔빌리지 초입에 위치한 FIM(이하 핼)이 개관 이후 두 번째 전시로 《조용한 소음 (Silent Noise)》을 선보인다. 멜로디박(b.1987)과 이수진(b.1983)의 상반되고도 조화로운 회화로 구성된 전시는 일상이라는 세계를 개성적으로 담아내는 두 작가와 함께 우리 주변을 허밍처럼 맴도는 ‘조용한 소음’과 같은 독특한 감각을 선사한다.

전시 서문

충돌과 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모니를 이루는 교향곡, 즉 ‘심포니(symphony)’는 ‘동시에 울리는 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전시 《조용한 소음》은 멜로디박과 이수진의 작품이 충돌하고 연결되며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상상하며 기획되었다. 멜로디박은 재료의 물리적 특성과 감각적 효과를 탐구하며 평면 위에서 색조와 형태의 긴장감과 조화를 구현한다. 반면 이수진은 일상의 순간과 풍경을 낯설게 변형하여 ‘불안’이라는 모호한 감각을 시각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처럼 두 작가의 작업은 서로 다른 매체와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감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안한다.

색을 공감각적 경험이라 생각하는 멜로디박은 작업실의 청각적 환경, 즉 ‘동시 소리’에 주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작가의 작업실을 가득 채우는 다양한 소음—비행기, 택배차, 새와 벌레들의 소리—속에서 감각되는 소리의 방향과 이동성을 시각화하며, 겹치고 합쳐지는 선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동력 에너지와 색채의 리듬을 화면에 나타낸다. 이번 전시의 신작들은 티타늄 화이트, 코발트블루, 제라늄 레이크레드, 버드나무 목탄 등 새로 만든 재료를 사용하여 색의 미세한 변화와 청각적 에너지를 탐구한다. 번지고 무너지는 선과 열어지며 스며드는 색은 작업의 출발과 도착의 모호한 관계와 소리의 부스러기를 표현한다. 이렇듯 작가의 신체적 운동성과 우연적 사건(happening)에서 발생한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는 화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서로를 침범하며 미끄러지는 틈 사이를 떠돌고, 관객은 이 과정에서 내면의 감각과 사유를 탐구한다.

이에 반해 이수진의 회화는 소리가 음소거된 정지화면처럼 고요하다. 작가가 꾸준히 집중해 온 ‘불안’의 장면은 평소 즐겨보는 미디어에서 발견한 불안의 몽타주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통해 일상 속 평범한 순간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작품은 담담하면서도 낮은 느낌을 주며, 절제된 모노톤의 색채가 이를 강조한다. 관객은 정지된 순간,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음 순간을 상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상을 낯설게 보는 방식을 제안하는 작가는 일상에 우연적 상황을 개입시켜 익숙한 현실의 전복을 시도하거나 평범한 경험을 역행하는 장치를 작품에 설정하여 일상과 작품을 바라보는 다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이수진의 작업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안이라는 감각을 단편적인 이미지로 환원시킴으로써 평온함과 긴장감의 양가적인 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처럼 멜로디박과 이수진의 작품은 전시장에서 서로를 끌어들이거나 밀어내며 상호작용한다. 멜로디박은 색상과 형태를 통해 소음의 물리적 특성과 감각적 에너지를 시각화하고 복잡한 리듬을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반면, 이수진은 일상 속 불안을 절제된 모노톤 색채로 변형해 평온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그려낸다. 이러한 특징은 서로 협력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클래식 합주에 빗대어 볼 수 있다. 두 작가의 작업은 색상과 크기, 구성 요소는 물론 추상과 구상, 실재와 허구, 시간의 정지와 흐름, 소음과 적막 등 대조적인 특성 안에서 서로의 순간을 섞거나 대치시키며 자신들만의 박자를 맞춘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쪽이 여유를 갖고 물러나거나 동시에 충돌하여 그사이를 점유하거나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클라이맥스의 순간도 있을 것이다. «조용한 소음»은 이들이 크로스오버(crossover)되어 어우러지며 만들어가는 시각적 언어와 감각적 경험을 보여주고, 관객은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합주를 통해 새로운 감각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공간에서 뒤섞인 작업이 생성하는 조용한 소음은 우리 주변을 허밍처럼 맴돌며, 평범한 일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작가 소개

멜로디박은 시간의 흐름, 환경에 따라 매일같이 변하는 순간적이고 산발적인 일상의 체험을 영감의 기반으로 삼고 빛과 공간, 계절의 시공간적 감각을 색을 매개로 탐구한다. 작가에게 색이란 붙잡기 어렵거나 정의 내릴 수 없는 세계를 표현하고 포착해내는 감각의 총체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주위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지닌 역동성은 작가의 우연적인 감각으로 체화되어 그만의 색채와 선들로 표현된다. 작가의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법은 색을 하나의 화학적 혼합물로서 다루고, 재료의 질감과 물성 등을 재조합하며 탐구하고 실험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멜로디박의 작업에서 기본 구조가 되는 색은 몸의 안팎을 활발히 휘젓는 가변적이고 휘발적인 일상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멜로디박(b.1987)은 영국 킹스턴 대학교에서 순수미술 학사를 졸업하고 글래스고 스쿨 오브 아트에서 순수미술드로잉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개인전으로는 «Willow charcoal gray»(Prompt Project, 서울, 2023), «Swimming pool in the corner»(최정아갤러리, 서울, 2022), «Bismuth vanadate yellow»(H Contemporary Gallery, 성남, 2021) 등이 있으며, «인천을 봄»(인천아트플랫폼, 2024), «Turps banana x PADA residency 04»(Galeria PADA, 바헤이루, 포르투갈, 2022), «20200220, 우연히 즉흥적인»(도잉아트, 서울, 2020)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수진은 불안이라는 보편적 심리를 주된 모티프로 삼고, 이를 영화적인 장면으로 묘사한다. 실제 작가가 차용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미장센은 그 부분적인 사용으로 인해 기시감 속의 낯설고 이질적인 심상을 유발한다. 작가는 일시 정지되고 크롭된 장면들을 밀도 높고 치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일상과 상상, 불안과 해소, 긴장과 이완의 경계를 와해한다. 구체적인 장면이나 소재를 통해 내밀한 감정을

은유하는 작가의 회화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불안을 축약과 재치로서 환기하려는 실천적 수행을 반영하고, 절제된 화면 앞에 선 관객 또한 관조와 몰입을 넘나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진(b.1983)은 국민대학교 회화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개인전으로는 «Still, Life, Manual»(oaoa, 서울, 2024), «사물의 독백»(고희동미술관, 서울, 2023), «일종의 평화»(oaoa, 서울, 2022), «Ghost Image»(드로잉룸, 서울, 2021) 등이 있으며, 이인전 «wonder»(드로잉룸, 서울, 2023), «명명된 거울 없음»(LaLa&, 서울, 2021)과 «순간의 순간들»(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2024), «High-Stakes»(7 Rue Saint-Claude, 파리, 2023),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서울대학교미술관, 2023), «On Longing (or, Modern Objects Volume II)»(헉슬리 팔러, 런던, 2023)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전경 및 대표작 이미지



전시 전경, 《조용한 소음 (Silent Noise)》, 2024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조용한 소음 (Silent Noise)》, 2024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전시 전경. 《조용한 소음 (Silent Noise)》, 2024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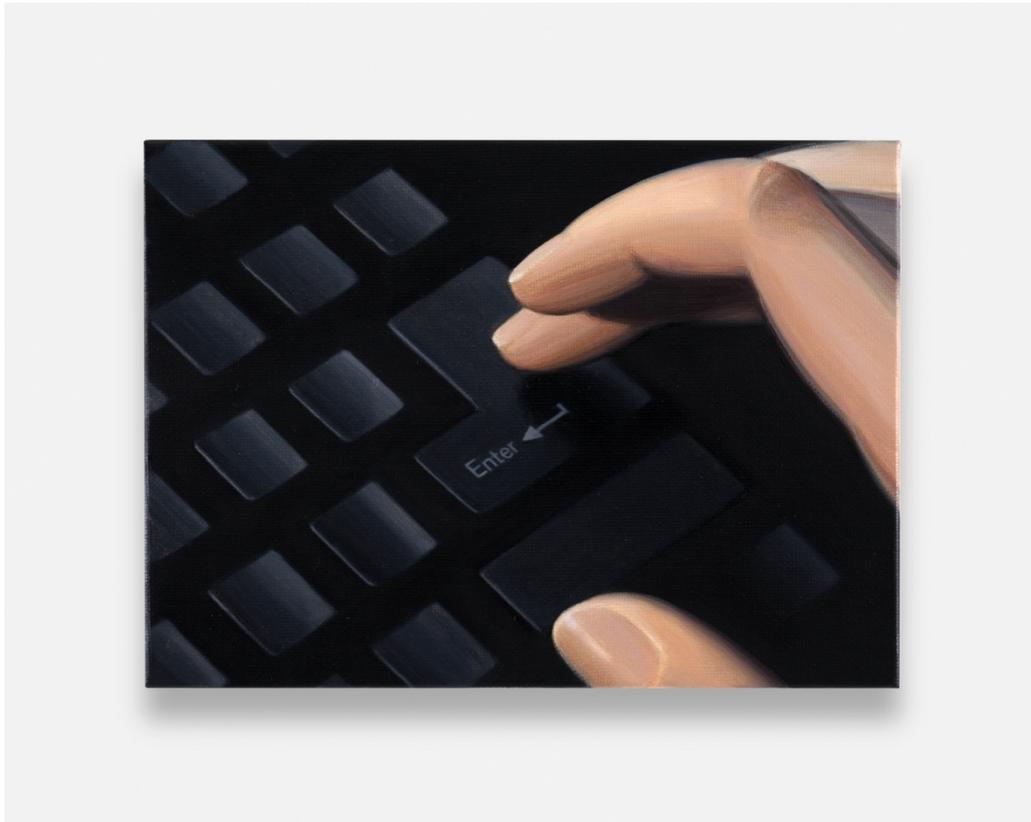


전시 전경, 《조용한 소음 (Silent Noise)》, 2024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멜로디박, *I had some blueberry lemon cake after morning walk.*, 2023

oil, color pencil, pastel, ancient drawing stone (Amandola blue clay, Verona Green and graphite cigar), 162.1 x 227.3 cm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이수진, 결심 *Decision*, 2024
oil on linen, 15.8 × 22.7 cm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